



태극전사들 내일 밤 무조건 그리스 깐다



(박주영) (염기훈) (박지성) (기성용) (이청용)

선봉에 '양박 쌍용'... 조직력 스피드 앞세워 첫승 신고

‘발칸반도의 복병 그리스’를 넘어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위대한 도전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이 12일(한국시각) 오후 8시30분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그리스와 본선 B조 조별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오토 레하겔 감독이 지휘하는 그리스 모두 1차전이 16강 진출을 가능하는 분수령이다.

같은 B조의 아르헨티나가 한 수 위 전력으로 무난하게 16강에 오를 것으로 보여 남은 한 장의 티켓을 놓고 한국과 그리스, 나이지리아가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안방에서 열렸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 진출 신화를 창조했고 유럽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그리스는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4)를 제패했던 기록을 연출했다는 점은 많이 닮았다.

한국과 그리스 모두 1차전 맞대결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면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리스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13위로 한국(47위)보다 34계단이나 높지만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을 괴롭혔던 유럽 팀으로는 그나마 맞먹어볼 만한 상대다.

역대 상대전적에선 한국이 1승1무로 앞서 있다. 지난 2006년 1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친선대회에서 간판 공격수 박주영의 득점포를 앞세워 1-1로 비겼고 2007년 2월6일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평가전에선 이천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허정무 감독은 유럽 무대에서 뛰는 해외파를 총가동해 ‘장신군단’ 그리스의 벽을 허물겠다는 복안이다.

4년 전 그리스와 대결에서 골맛을 봤던 박주영이 ‘원발 달인’ 염기훈과 상대 골문을 열 공격의 생두마차로 나선다. 또 ‘캡틴’ 박지성이 왼쪽 날개를 맡고 박지성과 같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인 이청용이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다.

중앙 미드필더진은 검증된 기성용-김정우 듀오가 호흡을 맞춘다. ‘양박(박주영·박지성)-쌍용(이청용·기성용)’이 대표팀의 주축으로 그리스 허물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4-4-2 전형의 포백 수비진은 왼쪽부터 이영표-조용형-이정수-차두리가 늘어선다. 피부 발진과 통증을 수반한 대상 포진에 걸려 사활을 쉬었던 중앙수비수 조용형이 완쾌되면서 든든한 수비벽을 친다. 골키퍼 장갑은 노련한 이운재가 낄 것으로 보인다.

허정무 감독은 “그리스는 장신 공격수와 수비수가 많아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이지만 느린 수비수의 뒷공간을 이용해 득점을 노리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에 맞서는 그리스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이다.

‘오토 대제’로 불리는 명장 레하겔 감독은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4-3-3 포메이션과 3-4-3 전형을 혼용했으나 스타백을 기본으로 하면서 좌우 윙백 2명이 수비에 가세하는 형태의 5-2-3 포메이션에 가깝다.

주축 중앙수비수 방켈리스 모라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건 다행이지만 190cm 안팎의 공격수와 수비수가 세트피스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때문에 조용형과 이정수 등 한국 수비수들이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공격수로는 유럽에선 득점왕에 올랐던 테오파니스 게카스와 오른쪽 날개를 책임졌던 디미트리오스 살킨기디스 등 한 명이 선발라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191cm의 안젤로스 하리스테아스와 기성용의 셀틱 동료인 요르고스 사마라가 경쟁대상이다.

또 전방 키커인 요르고스 카라구니스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슈팅도 위협적이다. 한국과 그리스가 맞붙을 포트엘리자베스는 초속 6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데다 현지시각으로 낮 경기(오후 1시 30분)로 치러지기 때문에 경기력 이외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B조의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는 같은 날 오후 11시 요하네스버그의 엘리스파크에서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한국 2승 1패로 16강 오른다

■ 호남대 축구학과 경기분석팀 B조 예선 시뮬레이션 분석

이동국 선제골...그리스전 2대1로 격파

‘한국축구대표팀이 2010남아공월드컵 B조 예선에서 2승1패로 16강에 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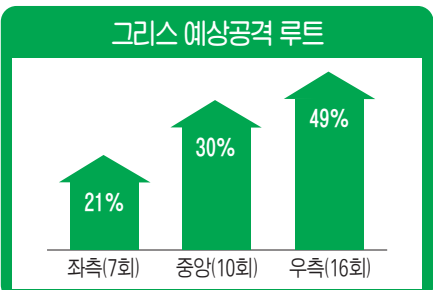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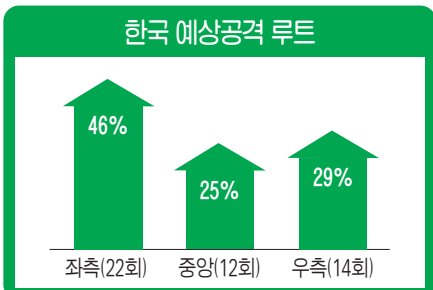
호남대학교 축구학과 경기분석팀이 한국과 그리스·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팀을 정밀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예상했다. 장재훈 교수가 이끄는 경기분석팀은 그간 이틀팀의 경기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수치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별리그 결과를 예상했다. 공·수 패턴과 호흡 그리고 주요 선수들의 장단점 등 각팀의 전력을 대입해 예상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가상이기에 실제 경기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광주일보에는 월드컵 기간 중 호남대 축구학과 경기분석팀이 제공하는 조별 예선 예상과 결과 분석을 게재할 계획이다.

B조 3경기 중 먼저 11일 오후 8시30분에 열리는 그리스와의 1차전을 예상해 본다. 그리스전 시나리오는 지난 2009년 11월 우크라이나와 가졌던 남아공월드컵 유럽지역 예선 경기를 토대로 마련했다. 경기분석팀은 “한국이 그리스를 2-1로 제압하고 16강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다”고 분석했다.

◇ 전반기 초반 그리스의 탄탄한 수비에 고전 = 경기 초반부터 그리스는 미드필더와 수비라인의 간격을 3m 내외로 유지하며 수비에 치중한다. 한국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리스의 그물수비에 좀처럼 결정적인 골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성용·김정우가 중거리 슈팅을 날리거나, 반칙을 유도해 세트플레이를 펼치지만 좀처럼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한다.

◇ 전반기 44분 기성용의 패스, 이동국 선제

한국	vs	그리스
12(4)	슈팅(유효)	10(5)
2	골	1
2	코너킥	2
2	오프사이드	5
2	경고	2
54.84%	경기점유율	45.16%
72.04%	패스성공률	75.71%
48%	총패스성공률	29.41%
925회	볼 터치수	980회



골=답답한 경기를 이어가던 한국은 전반 44분 그리스의 수비간격이 넓어지자 빈 공간을 노린 공격을 펼친다. 조용형이 하프라인 근처에 있던 기성용에게 공간 패스를 해

주고, 볼을 받은 기성용이 최전방에 있는 이동국에게 연결한다. 결국 이동국은 빠른 드리블로 그리스 최종 수비진을 뚫고 들어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얻었고, 침착하게 골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린다.

◇ 후반 초반 그리스 게카스의 동점골로 승부 원점 = 후반 시작과 동시에 그리스가 거세게 공격하면서 한국이 밀리기 시작한다. 결국 후반 5분게 카라고니스가 오른쪽 측면에 있던 살킨기디스에게 볼을 연결한다. 살킨기디스는 차두리를 제치고 낮게 올린 크로스를 게카스가 골로 연결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다.

◇ 김남일·안정환·이영표 교체투입으로 반전 꾀하는 한국 = 동점골 허용 이후 그리스 공격은 더욱 활기를 띠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다소 밀리는 양상이 전개. 후반 15분이 지나자 허정무 감독은 김남일·안정환·이영표를 차례로 투입하면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작전을 구사한다. 한국은 이정수·조용형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빠른 역습을 전개해 경기 주도권을 다시 가져온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저하를 보이는 그리스는 수비전환이 늦어지고 발빠른 한국선수들을 놓치지 시작한다.

◇ 안정환 결승골 터뜨리며 첫 승 선물 = 경기 흐름이 한국쪽으로 기울면서 후반 35분게 결승골이 터진다. 그리스의 간접 프리킥으로 문전 혼전 상황에서 볼을 가로챈 이영표가 박지성에게 킥 패스를 연결시킨다. 박지성은 왼쪽 빈 공간으로 파고들어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려준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안정환이 쇄도해 들어와 박지성의 크로스를 골로 연결시킨다. 마음급해진 그리스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지만 한국의 효과적인 지연술로 추가골을 성공시키지 못한채 경기를 마무리 짓는다. 결과는 한국은 2-1로 첫승을 거머쥐며 16강을 향한 상큼한 출발을 보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미리보는 개막식

10일 오전(한국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시카시티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남아공월드컵 개막식 리허설에서 32개 출전국 국기가 선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남아공월드컵은 11일 밤 11시 개막식에 이어 남아공-멕시코전으로 막이 오른다. /연합뉴스

슬로건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

한국- 승리의 함성, 하나된 한국
아르헨- 총착지, 그것은 영광
그리스- 그리스는 세계 어디에나!

월드컵 출전 32개국은 각각 슬로건을 내걸고 본선에 올랐다. 각국이 내건 슬로건에서 승리에 대한 열망과 꿈을 읽을 수 있다.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라 원정 대회 사상 첫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슬로건은 ‘승리의 함성, 하나된 한국(The Shouts of Reds, United Korea)’이다.

한국과 같은 B조에 속한 아르헨티나는 ‘총착지, 그것은 영광(Last stop, Glory)’라는 슬로건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의 영원을 담았다. 한국의 본선 첫 경기 상대인 그리스는 ‘그리스는 세계 어디에나!(Greece is everywhere!)’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슈퍼 이글스’라는 애칭을 지닌 나이지리아 대표팀은 ‘최고의 독수리들과 최고의 팬이 하나가 돼 우리는 맞선다(Super Eagles super fan united we stand)’는 슬로건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월드컵에서 대륙의 강자다운 위용을 보여

여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슬로건에는 나이지리아처럼 자국 대표팀의 애칭을 넣은 나라가 많다.

네덜란드(빅5를 두려워 말라. 오펜지 군단의 11명을 두려워하라), 일본(사무라이 정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일본 승리!), 카메룬(불굴의 사자들이 돌아왔다) 등 E조 참가국들이 대표적이다.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도 ‘이탈리아의 푸르르(Azzurro)을 아프리카 하늘에’, 파라과이는 ‘과라니(Guarani) 사자는 남아프리카에서 포효한다!’, 코트디부아르는 ‘코끼리들이여, 승리를 위해 싸워라!’며 대표팀의 애칭을 슬로건에 넣었다.

북한의 슬로건은 ‘또다시 1966년처럼, 조선이 이겨라!’이다. 전차군단 독일(월드컵 우승으로 가는 여정!)이나 멕시코(새로운 챔피언을 위한 시간!)의 슬로건에는 대회 우승에 대한 영원이 담겼다. /연합뉴스